

발행처 :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발행인 : 임기선 요셉  
 주소 : 26 Carnarvon Street  
 Silverwater NSW 2128  
 홈페이지 : www.sydneykcc.org  
 info@sydneykcc.org  
 전화 : 02 8756 3333

# 시드니가톨릭신문

## The Korean Catholic News of Sydney

주임신부 : 임기선 요셉  
 보좌신부 : 전상현 스테파노  
 노호영 미카엘  
 고해신부 : 홍 야고보  
 수녀 : 좌순선 인노첸시아  
 최연숙 디아나  
 윤경남 바오로  
 사목회장 : 정영수 요한

VOL. 113 “너희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며 내가 너희 안에 있음을 깨달아라.” (요한 14,20 참조) 2014년 11월 1일 (월간)

## ‘Walk in Love’ 의료봉사로 전하는 작은 사랑

파푸아뉴기니 파견 해외의료봉사단 10월 6일-12일 천여명 현지인들에게 따뜻한 손길



의사가 부족해서, 병원 갈 돈이 없어서, 진료소가 없어서, 약품이 없어서... 이것이 파푸아뉴기니(이하 PNG) 현지인들이 상처를 치료받지 않고 병을 끌어 안고 사는 이유이다.

지난 해에 이어 해외의료봉사단 ‘Walk in Love’가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파푸아뉴기니의 수도 포트 모레스비에 있는 까리마스 테크니컬 세컨더리 스쿨(Caritas Technical Secondary School)을 찾아 의료와 의료 교육 봉사 활동을 펼쳤다.

노호영 미카엘 신부, 좌순선 인노첸시아 원장 수녀, 원광현 마르코 단장 외 17명의 본당 청년들과 뉴질랜드 가톨릭한인청년 해외봉사단 베리타스에서 온 2명 까지 합세해 팀을 꾸렸고, 이들은 의사 1명, 치과 의사

4명, 간호사 5명, 약사 1명, 물리치료사 1명, 의료 교육 봉사자 3명, 일반봉사자 2명 등으로 조직을 구성해 전 세계적으로 의료환경이 열악하기로 손꼽히는 PNG를 방문했고 특히 현지인들도 고개를 설레설레 흔든다는 빈민촌을 방문하기도 했다. 이들은 현지인들에게 일반진료는 물론 치과진료, 특히 PNG 사람들에게 저가의 안경보급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기업인 피엔지 아이케어(PNG EYE CARE)에서 보내 준 2명의 검안사가 제공하는 무료 검안까지 실시했다.

봉사단은 1주일의 시간 안에 효과적인 봉사를 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치료 위주의 활동도 중요하지만 현지인들에게 의료보건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활동으로 빈민

촌 바다바다 마을을 비롯 네 개 마을에서 온 1천여명의 현지인들이 진료 혜택을 받았다.

의료팀은 고질적인 무릎과 허리통증, 각종 기관지 감염, 여성 부인과, 피부질환, 소화기관 등의 질병을 앓고 있는 총 655명의 현지인들을 진료했다. 기본적인 혈압 당뇨 검사로부터 질병 예방법 교육, 상처와 피부 감염 치료, 약 처방 등을 했다. 특히 현지인들은 소견서(Referral letter)를 받는 것조차 어려운 일하기에 고등단계의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을 위한 소견서 작성도 실시했다.

치과 진료팀은 총 464명의 환자들에게 발치와 스켈링 치료를 했다. 치위생 상식 부족으로 치건강 상태는 매우 좋지 않았고 올바른 양치질을 비롯한 치위생 교육 역시 병행했다고 한다. 거의 모든 환자들이 치과 진료를 난생 처음 받아보거나 지난 해 1기 의료봉사 이후 처음이었다고 한다.

피엔지 아이케어(PNG EYE CARE)에서

파견된 검안사들은 총 177명의 현지인들에게 검안을 실시했고 대부분이 안경이 필요하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전했다.

교육 봉사팀은 진료를 기다리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위생, 영양, 물건을 들거나 옮길 때의 바른 자세 등의 교육을 했고 바다바다 마을 아이들을 대상으로 위생 교육과 영어 학습을 실시하기도 했다.

봉사단은 “부족했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다. 1기 봉사팀에 감사한다. 지난해 경험에서 우려난 조언 덕분에 2기 봉사단이 한 사람도 아픈 사람이 없이 뜻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우리가 본당 교우들의 사랑을 전하는 작은 도구가 될 수 있었던 행복했던 시간이었다. 본당 교우들의 후원과 지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존경하는 임기선 요셉 신부님 그리고 교우들께

서로 기대어 살아야 사람이 된다는 뜻을 담았다는 사람 인(人)의 참된 의미를 맘껏 쏟아냈던 시드니 해외 의료봉사팀의 뜨거운 일주일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처럼 아름다운 청년들이 우리 파푸아 뉴기니의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후원해주신 주임 신부님과 교우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

습니다.

진료소가 없어서 돈이 없어서 아프면 병원을 가야 하고 약을 먹어야 한다는 단순한 사실조차 외면하고 살아야 했던 파푸아 뉴기니 사람들에게 아무런 조건도 대가도 바라지 않고 사랑을 나누어 준 시드니 청년들은 하느님 사랑의 참된 메신저들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새벽 6시부터 까리마스 러닝센터의 문 앞을 지켰던 천여 명에 다른 사람들은 예쁘고 잘생긴 청년 한인 의사, 간호사 선생님들의 친절하고 미소와 진료에 얼마나 고마와 하고 행복해 했는지요..

파푸아 현지인들도 들어가기 무서워하는 바다바다 마을을 직접 방문해 어린이들의 교육과 상처 치료를 기꺼이 도맡아 준 교육팀 미녀 삼총사와 간호사 선생님들의 사랑은 우리 바다바다 어린이들을 충분히 매

료시키고도 남음이 있었지요. 진료를 마무리하는 토요일에 자신들도 뭔가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민속 춤과 선물을 준비하는 바다바다 어린이들과 러닝센터 선생님들의 마음에 저희 선교사 수녀들이 오히려 더 감사할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마음껏 봉사할 수 있도록 주방과 시장에서 열심히 뒷바라지를 하였던 신부님, 수녀님, 단장님, 주방장님의 모습은 섬기는 지도자의 모습을 생활 안에서 보여주신 모범이었습니다.

10년 전 파푸아를 방문했던 ME 부부들을 시작으로 해외 선교봉사팀, 파라다이스 장학회로 이어지고 있는 시드니 한인성당과의 인연은 하느님이 저희 선교사들에게 보여주시는 당신 사랑의 증표입니다. 고국과 멀리 떨어진 선교지에서 저희라고 어찌 외롭거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렇듯

사랑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자 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저희는 그 외로움과 고통의 십자가를 다시 짊어지겠다는 용기를 갖게 됩니다.

신부님, 그리고 교우들..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포트 모레스비 수녀원에서 예수의 까리마스 수녀회 선교사 일동





## 프란치스코 교황 “변화 두려워 말아야” ...

19일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 폐막 미사와  
교황 바오로 6세 시복식 열려



“혁신은 이제부터다”  
가정을 주제로 한 가톨릭 세계주교대의원대회(주교 시노드) 제3차 임시총회가 모든 가정을 향해 교회의 문을 활짝 열고 19일 폐막 미사를 끝으로 15일간의 비공개 회동을 모두 마치고 최종 보고서를 표결해 발표했다.

18일 투표를 통해 그동안 논의한 내용을 최종 보고서 62개 문항으로 채택, 가정과 혼인에 대한 가톨릭교회의 전통 가르침을 재확인했다. 주교들은 지역 교회로 돌아가 내년 정기총회 때까지 임시총회에서 다룬 모든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최종 보고서는 2015년 10월 4-25일 ‘교회와 현대 세계에서 가정의 소명과 사명’을 주제로 열리는 세계주교시노드 제14차 정기총회의제개요(lineamenta, 토론자료)로 사용된다.

예비 보고서에 포함돼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동성애와 이혼 포용 부문은 결국 제외됐다. 시노드 참석 200여명의 주교 투표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비 보고서에서 “동성애자도 기독교 공동체에 헌신할 자격과 은사가 있다”고 됐던 부분도 삭제됐다. 이 부분을 “동성애 성향의 남녀를 존중하는 태도로 환대해야 한다”고 완화하려고 했으나 ‘너무 모호하다’는 진보 성향 주교들의 반대로 실현되지 못했다. 최종 보고서는 교리상 결혼은 남녀 간에만 할 수 있다고 거듭 못박았다.

중간 보고서에는 이혼했거나 재혼한 신자의 영성체 참여를 허용하는 문제를 고민한다는 부분도 포함돼 보수 성향 주교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었다. 이것 역시 3분의 2 찬성의 벽을 넘지 못하고 최종 보고서에서 삭제됐다.

반면, 결혼하지 않은 남녀 커플과 이들의 자녀는 포용하자는 부분은 최종 보고서에도 포함됐다. 또 상당수의 신자가 피임하는 것이 현실인만큼 이것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도 살아남았다. 기존의 교리는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19일 주교 시노드 종료 미사에서 1960년대 가톨릭 교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주재한 교황 바오로 6세를 시복하면서 “신은 새로운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가슴을 열게 해준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교회가 용기를 갖고 많은 새로운 도전에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황은 18일 최종 보고서 채택 후 시노드를 결산하면서 “(내년 정기총회까지) 임시총회 논의를 숙성시킬 시간이 1년이 남았다. 많은 가정이 당면한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계속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또한 “앞으로 변화를 위한 투명한 논의가 계속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번에 씨앗을 뿌렸으며 내년 10월 시노드까지 인내를 갖고 지켜보자”고 덧붙였다.

이번에 채택된 보고서가 내년 시노드까지 계속 논의되면 최종 결정권은 교황이 갖게 된다.

교회가 2천여년간 터부시해 온 동성애와 이혼 포용 등은 ‘가정 사목’ 주제로 열린 이번 시노드에서 교황이 강력히 밀어붙여온 핵심 사안이다. 보수파 주교들의 강한 반발로 좌절됐으나 시노드에서 논의됐다는 자체만도 ‘혁명’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

## 영성 높은 성모님의 군대가 되기 위해서...



지난 25-26일 1박 2일동안 120여명의 레지오 단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공동체 피정센터인 세인트 조셉 컨퍼런스 센터(St. Joseph's Conference Centre)에서 레지오 피정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지친 심신을 내려놓고 주님과 오롯이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 마련한 이번 정기 피정에서는 ‘레지오의 질적 향상과 소공동체와의 상생’이라는 주제로 토론대회가 열렸다.

4개의 주제를 가지고 9개 조로 나뉘어 각 조들은 레지오를 하는 이유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고 각각 부여받은 4개의 주제 토론에 들어갔다.

간부의 역할 강화, 간부의 영성(신심) 생활 강화, 간부의 사명감(레지오의 열정, 활동 배당과 수행, 평의회 참석 등) 향상 그리고 입교 권면활동 증진을 위한 방안들을 조별로 3시간여에 걸쳐 토론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토론 중에는 각자가 속해 있는 뿌레시디움에서 그간 해왔던 활동들을 토대로 성공 사례는 서로 비춰서 공감대를 이끌어 냈고, 실패 요인은 원인 분석을 할 수 있었던 건설적인 시간이었다.

뿌레시디움의 단원들의 숫자는 보통 10명이 넘지 않는 것을 고려할 때 정단원들에게 단장, 부단장, 회계, 서기 등 4개의 간부직을 맡을 시기는 다소 열려 있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이번 토론을 통해 레지오가 더욱 건강하고 높은 신앙심을 가지고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기 위해서는 간부들의 모범적인 신앙생활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했다. 따라서 본당차원에서 각 간부별 훈련과 교육을 마련했으면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각 간부별 역할과 임무 수행 방법에 대해 따로 따로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이다.

또한 소공동체 모임 참석을 하지 않는 레지오 단원의 숫자가 전체 70%를 웃돌아 본당 안에서 레지오와 소공동체 활동이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이 확인됐다. 소공동체 내에서 할 수 있는 레지오의 활동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활동 배당이 되어 마치 두 개의 톱니바퀴가 서로 맞물려 돌아가야 힘을 더욱 얻듯 소공동체와 레지오도 상생 공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타개해야 할 실제적인 문제점들이 있음도 지적됐다.



**Virtuoso Coffee**  
Roast and Supply

맛있고 신선한  
원두커피를  
공급해 드립니다!!!

\* 연락주시면 샘플빈을 우송해드립니다.  
www.virtuosocoffee.com.au

김세준 다니엘 0401 907 304

**코리아여행사**

국내외 항공권 직접 발권 / 해외 패키지  
성지순례 / 호텔예약

캠시본점 9787 6633  
이스트우드 점 9804 1200

이명순 데레사

**상성한의원**  
한 의사 강성후  
Bachelor of Medicine

“건강은 우리 모두의 가장 소중한 재산입니다”

Strathfield 본원  
1/12 Churchill Ave Strathfield 2135

Lidcombe 본원  
28/1-3 Mary St Lidcombe 2141

- 침구치료 본인부담 없음 (conditions apply)  
TEL: 9746 3537

“사랑을 드리고 신변에 주는 ‘영원’성모치과의 약속입니다.”

**성모치과**  
Gentle Cosmetic & Preventive Dental Care

진료과목  
임플란트 / 치아미백 / 심미치과 / 교정

진료시간  
월~토(오전 9시~오후 6시)

56 Railway St, Lidcombe 2141  
T 9649 1800





# 복녀 강완숙 골롬바



이름만 들어도 정이 가는 분이다. 여성의 사회활동이 전무하던 당시에 시대와 사회를 뛰어넘어 활화산처럼 강렬하게 타오르며 주위를 밝히신 선각자! 교회사는 “당시의 신자로서 그녀를 애모(愛慕)하고 감탄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강완숙 골롬바(1761-1801년)는 충청도 내포지방의 양반가문 출신으로 당시에 충청도 지방에 전해진 ‘천주교’ 라는 새로운 종교 이름을 듣고 “천주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고 그 종교의 이름이 의미하는 바가 올바르니 그 도리가 반드시 참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신앙의 진리를 찾았다. 양반인 홍지영의 후실로 출가했으나 천주교 활동에 불안을 느낀 남편은 부인이 신앙을 포기하도록 종용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전처의 아들 홍필주와 본인 소생의 세 딸에게 전교하여 열심한 신자를 만들었다. 신해박해 때에는 수감된 교우들의 옥바라지를 하다 본인도 체포되었다. 1791년 후반 사면으로 옥에서 석방된 후, 한양의 교우들이 교리에 밝다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을 떠나 시어머니와 아들 홍필주를 데리고 상경한다. 그리고 1794년 12월 24일 주문모 신부(이하 주신부)가 조선에 입국하자, 그에게서 한국 여성 최초로 세례를 받고 그의 활동을 도왔다. 샤를르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를 보면 “강완숙은 1795년 을묘박해가 일어나자 주신부의 거처를 자기집으로 옮겨 3년 동안 자신의 집 나무방에 숨겼다가 시어머니가 허락한 덕분에 방으로 숨을 곳을 옮겨 3년 도합 6년 동안 은신케 하고 위험을 무릅쓰가며 신부를 보호하였다. 그리고 비밀리에 부활절 미사 집전 등 신부의 지방 전교를 도왔다. 그리하여 이시기에 한국천주교회의 신자수는 5년 만에 4천에서 일만으로 늘었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어려웠던 교회의 초창기에 주신부를 도

와 6년 동안 안전하게 전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선한 것은 강완숙의 큰 업적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당시의 강완숙의 집은 신앙의 구심점으로 새 신자의 교리 강습회, 교회 지도자들의 사목회의 등 다양한 교회 활동이 이루어져 사실상 본당 역할을 했다. 그리고 그녀는 주신부 입국 때부터 신부영입 운동에 경제적인 뒷받침도 해주었다. 우리 교우들은 한국천주교회 창립에 디딤돌 역할을 하신 그분의 큰 공로를 결코 과소 평가해서는 안 된다. 교회는 그녀의 열성과 기민한 활동에 감동하여 한국 여성에게는 최초로 세례를 주었다. 또한 주신부는 그녀의 신앙과 재질을 알아보고 평신도 전교 단체인 명도회의 여성회장으로 임명하여 봉사하도록 했다. 강완숙은 지식과 재치가 뛰어나 유학자들은 물론이고 노비, 평민, 중인, 양반의 부녀자들 그리고 궁중의 상궁 나인들과 왕가의 여인들에 이르기까지 교화 권면하여 열심한 애덕으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했다.

지식인인 강완숙은 고명한 유학자들과 교리에 대해 토론을 함으로서 기독교 교리의 뜻을 이성으로 설명하는 변증가(辨證家)이기도 하였다. 그리고 동정녀와 과부들로 이루어진 ‘여성교우 신앙 공동체’ 를 형성하여 그들과 함께 생활하고 기도하며 교리 연구와 전교로 애덕을 실천했다. 동병상련(同病相憐)이라 동정녀 사정은 동정녀가 안다고, 이때에 주신부의 명에 따라 강완숙을 도와 동정녀 공동체를 맡아 가르치고 이끄신 분은 동정 복녀 윤점혜 아가다 이다. 그리하여 남존여비(男尊女卑), 삼종지도(三從之道), 칠거지악(七去之惡) 등 여성을 옥죄이던 사회적인 통념에 사로잡혀, 희생과 눈물로 삶을 엮어가던 조선 여인들에게 삶을 향한 희망과 용기를 불어 넣어주며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다. 또한 여성들의 사회활동과 교육활동이 전무했던 시절에 신앙 중심의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여 생활화했으니 여성 수도생활의 효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강완숙은 역모에 연루되어 강화도에 유배 중인 정조의 서제 은언군과 그의 장남 상계군의 부인들이 유배된 한양의 양제궁에 잡입하여, 은언군의 부인 송씨와 며느리 신씨에게 ‘빛’ 을 전해주고, 주신부를 통하여 ‘마리아’ 란 본명으로 세례를 받게 하였다. 천주교를 박해하던 조선왕실에 최초로 복음을 전한 것이다. 그러나 송 마리아와 신 마리아는 강완숙이 체포된 후 한때 주문모 신부의 은신처를 제공한 죄목으로, 강화도에 유배 중인 은언군과 함께 신유박해 때에 사약을 받고 순교했다. 이분들이 순교한지 48년 후 손자가 왕위에 오르니 이 분이 ‘강

화도령’ 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조선 25대왕 철종이며, 이때 천주교의 교세가 확장됨을 어찌 우연이라고만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정약종 명도회장을 도와 여성회장으로 전교 사업에 전념했다.

강완숙은 위대한 정력가이며 활동가이고 열렬한 여장부로 천주의 은총을 입어 모든 자선사업을 지도했다. 당시에 열성적인 남자 교우들도 그녀의 기개와 지식을 인정하여 조언을 따랐다고 하니 ‘여자 판관 드보라(판관기 4장)’ 가 연상된다. 이에 대해 교회사는 “망치로 종을 치면 소리가 따르는 것과 같았다” 라고 기록하고 있다. 달레 신부의 한국천주교회사에는 “강완숙은 작고 큰 어려움에 봉착하는 신앙공동체의 일을 마치 뒤엀킨 뿌리 못치를 끊는 손과 같이 능란하게 처리하였으며 남자들 중에서도 교우가 많았지만 모두가 기꺼이 그녀의 가르침을 따랐다” 고 적었다. 또한 황사영 백서에는 “강완숙은 대단한 말솜씨와 이치에 합당한 말로 교리를 가르쳤다” 고 나오니 그녀가 하느님의 자녀로서 당시 얼마나 혁혁한 활동을 했는지 가늠하게 된다. 이어서 백서는 “한국 교회를 위해 노력한 사람 중 남녀를 통틀어 강완숙을 당할 사람이 없다” 고 말했다.

한국천주교회의 여성 순교사는 위대한 신앙의 선구자 강완숙에게서 비롯되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렇듯 폭 넓은 그녀의 전교활동에 대해 사형죄목에는 “강완숙은 남녀와 신분을 가리지 않고 불러들여 천주교에 물들게 했다” 라고 적혀있다. 1801년 신유박해가 일어나고 김여삼의 밀고로 관아에 체포되는 과정에서도 사람을 얻어 주신부가 송 마리아 거처인 양제궁으로 안전하게 피신하도록 도왔다. 박해자들은 그녀의 교회 내에서의 위치와 열렬한 신앙활동, 주신부를 모신 사실 등으로 인해 여섯 차례나 혹독한 고문을 가했다. 혹형을 당하면서도 나약함을 보이지 않고 형리들에게 천주교의 교리와 공자 등 성인의 가르침을 인용 전교하여 형리들조차도 “비길 데 없는 유식한 여인이며, 사람이 아니라 귀신이다” 라고 감탄하였다.

강완숙은 3개월 동안 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도와 신심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았고, 갇혀 있는 동료들을 순교하도록 권면하였다. 이때에 감옥은 기도 소리가 그치지 않는 덕을 닦는 수련장이요 전교의 장이었다. 옥중에서 주신부 처형 소식을 들은 강완숙은 치마를 찢어서 그 동안 주신부가 조선에서 활동한 경과를 적어 후세에 남기고자 하였으나, 이것을 전해 받은 어느 여교우가 부주의로 말미암아 소중한 그 기록을 분실하

고 말았으니 애석한 일이다. 또한 같은 옥 중생활을 하던 아들 홍필주가 심한 고문에 못 이겨 배교할 것을 염려 “예수님은 머리 위에 계시고 지금 너를 지켜보고 있다. 어찌서 눈이 어두워 너의 님을 죽이려 하느냐, 용기를 내어 하늘나라의 복락을 생각하여라” 라고 격려했다. 결국 홍필주 필립보는 1801년 10월 28일 순교하여 이번엔 복자에 오르셨다. 강완숙은 사형집행 전 최후진술에서 “이미 천주교를 배웠고 스스로 죽으면 즐거운 세상으로 돌아간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형벌을 받아 죽을지라도, 신앙의 가르침을 믿는 마음을 고칠 생각이 조금도 없습니다” 라고 담담하게 신앙고백을 했다.

조선시대에는 사형수를 처형하기 전 수모를 주기위해 옷을 벗겼는데, 강완숙은 자신을 비롯한 사형수들이 모두 여자이므로 옷을 벗기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형리들은 그의 마지막 말을 받아 들었다. 사실 여성이 참수당하는 일은 조선 역사상 이때가 처음 있는 일이었다. 마침내 1801년 7월 3일(음력 5월23일) 41세의 나이로 서소문 밖에서 동료와 함께 참수로 순교했다.

신앙을 머리로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온 삶으로 풀어진 강완숙! 가족을 영생복락(永生福樂)으로 인도한 효부이며 현모인 강완숙! 영원한 생명으로서 주위에 빛을 전해준 진리의 전파자 강완숙! 한국 교회의 성장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여회장 강완숙! 조선 사회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진리에 온 삶을 투신하여 새로운 세계관을 열어준 강완숙! 신앙에 삼덕으로 한국여성 최초로 영생의 월계관을 쓴 강완숙! 그 이름은 한국의 천주교회사에서 영원히 빛날 것이다.

이제 복녀 강완숙을 끝으로 8회에 걸친 순교 이야기를 마감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고 : 이진원 미카엘)



**변호사 이수봉 토마스**  
**LSB LAWYERS PTY LTD**  
시드니 법대 학사(LL.B)/맥쿼리대 회계학 석사/공인회계사  
부동산 매매, 사업체 매매, 상가임대, 각종계약, 소송, 손해보상, 유언상속  
Level 5, Suite 1, Strathfield Plaza  
Strathfield NSW 2135  
TEL. 9746 3588 FAX. 9746 5722  
MOB. 0425 270 983

**김상진 회계사**  
**세무사**  
**절세 신속 성실**  
▪ 개인/회사 소득세 신고    ▪ 회계사무실 개업 19년 경력  
▪ ABN, GST 회사 설립    ▪ Macquarie대 회계학 석사  
▪ 세무상담/은행융자 상담  
**T. 8756 5522**  
1D, 9 Redmyre Rd, Strathfield (윤중병원 옆)

**바른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이장원 안토니오 (Anthony Lee)**  
NSW 주 대법원변호사, 시드니대 법대졸업, 성공관대 법대졸업, 맥쿼리대 통번역석사.  
**주요 법률서비스**  
교통사고, 음주운전, 민·형사 소송, 부동산, 비즈니스매매, 각종계약서  
Suite 7 Level 1 58 The Boulevard Strathfield  
**T 02 9715 1771, F 02 9715 2771**  
**M 0433 573 213**

**제일종합금융**  
Chell Financial  
흥론 · 비즈니스론 · 상업융자 · 건설융자  
오랜 경력의 금융전문가 정문기  
• Commonwealth Bank 14년  
• 제일은행 18년  
• 제일종합금융 9년  
**T. 02 9877 0355 / F. 02 9877 0366**  
**M. 0414 300 394 / Suite 33, 41 Rawson St. Epping**  
(에pping에서 걸어서 2분 거리)



2014년 11월 소공동체 모임 안내



구역	반	성별	반모임날짜	시간	이름	본명	전화번호
1	1	남	2014-11-14	8:00 PM	최재식	라파엘	0433 085 655
1	1	여	2014-11-19	11:00 AM	김명자	레지나	0400 036 375
2	2		2014-11-20	7:00 PM	신정애	베로니카	8756 5727
2	2-2		2014-11-14	7:00 PM	김미정	소피아	0425 407 747
2	3		공란				
3	1		2014-11-14	7:00 PM	한용덕	프란치스코	0431 257 883
3	2-1		2014-11-21	7:30 PM	정미선	아네스	0410 703 927
3	2-2		2014-11-28	7:30 PM	박은	요세피나	9706 3524
3	3		2014-11-25	6:30 PM	윤순옥	베로니카	0438 789 877
3	4		2014-11-14	7:00 PM	김건기	요셉	0423 812 132
3	5-1		2014-11-14	7:00 PM	미정		
3	5-1&2		2014-11-14	7:30 PM	조정희	아네스	0402 926 441
3	6-1&6-2		2014-11-14	7:30 PM	박보아	카타리나	0430 387 450
3	6-2		2014-11-14	7:30 PM	최영애	스텔라	0432 375 401
4	4		2014-11-08	8:00 PM	최문석	루피나	9874 9935
5	1		2014-11-06	11:00 AM	김경수	로사	0404 486 899
5	2		2014-11-14	6:30 PM	최	수잔나	0422 650 535
5	3		2014-11-14	8:00 PM	하미혜	세실리아	9809 6436
5	5-1&5-2		2014-11-29	7:00 PM	임성준	아오스딩	0433 813 105
5	6		2014-11-21	7:30 PM	김유철	스테파노	0414 980 559

구역	반	성별	반모임날짜	시간	이름	본명	전화번호
5	7		2014-11-14	8:00 PM	구본순	닐로	0423 375 026
8	1-1&1-2		2014-11-05	8:00 PM	홍명화	크리스토퍼	0411 873 986
8	2&4		2014-11-14	8:00 PM	정정애	아네스	
8	3		2014-11-01	7:00 PM	김성호	베드로	9644 4538
8	5		2014-11-15	6:30 PM	이규호	루이스	9543 5630
9	1		2014-11-21	11:00 AM	임선정	아셀라	
9	1	어르신	2014-11-21	7:00 PM	옥정자	엘리사벳	9630 8175
9	2		2014-10-17	7:00 PM	정철훈	요셉	
10	2		2014-11-14	7:00 PM	이학희	실비아	9636 6698
10	3		2014-11-21	8:00 PM	홍명애	에메렌시아	0425 209 892
11	1		2014-11-21	8:00 PM	기정애	안나	0415 791 280
11	3		2014-11-09	11:00 AM	성성숙	요안나	0433 500 511
11	4		2014-11-28	8:00 PM	김옥규	리디아	0403 248 720
11	6		2014-11-14	8:00 PM	조현행	토마스	8819 2287
12	1-1&1-2		2014-11-14	8:00 PM	김철	안토니오	0410 569 562
12	2		미정				
12	3		2014-11-03	11:00 AM	배윤옥	마르시아	0402 799 574
12	4		2014-11-14	8:00 PM	오효진	마리아	
12	7		2014-11-21		최정길	가브리엘	0431 694 652



하느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걷다

파푸아뉴기니(PNG)에서의 첫 날은 까리파스 수녀회 수녀님들과 반갑게 인사를 나누고 빈민촌인 '바다바다' 마을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까리파스 기술 고등학교 담장에 있는 문을 열자마자 나온 '바다바다' 마을은 나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다. 다른 마을 주민들과의 전쟁 중 방화에 의해 다 타 버린 집, 깨진 유리 조각들을 맨발로 밟고 다니는 아이들, 아이들의 발에 상처가 나고 피가 나는데도 방관하고 있는 부모들, 며칠째 입고 있는 옷인지 피지피지하게 때가 타 있는 사람들의 옷, 악취가 나는 쓰레기 더미 속에 살아가면서 치워야 하는 이유조차 모르고 있는 사람들...

이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는 이후로 있을 일정 생각에 설레고 가슴 부풀어 있었지만 방문 후에는 허무하고 막막하고 답답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바뀌어 버린 내 자신을 보게 됐다. 어려운 환경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으면서 열악한 환경일 것이라는 짐작을 했으면서

도 왜 이런 감정이 드는지 내 스스로가 이해되지 않았다. 숙소로 돌아온 후 생각해 보니 20여년동안 마을 주민들을 돌본 수녀님들의 노고의 결과가 방금 내가 두 눈으로 본 '바다바다' 마을의 현재 모습일진대 허무한 마음이 들면서 내게 있는 5일이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게 느껴졌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길을 잃어버린 것이다. PNG 도착 하기 전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없으니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겨야 한다"고 자기최면처럼 했던 말들이, '바다바다' 마을 방문 후에는 ".....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을 안게 됐다.

그날 밤 신부님께서 선택해주신 복음 말씀 중 "하늘나라는 거자씨와 같다...(마태 13:31-32)"라는 말씀이 있었다. 묵상 중에 내 마음에 와 닿은 것은 내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이었

다. 내가 하는 작은 일들이 좋은 일이 되기만을 바라고 겨자씨처럼 작은 일들이 언젠가는 큰 결과를 이루기를 무의식 중 기대하고 욕심내고 있었다. 그래서 아마도 마을을 보고 온 후 수녀님들의 오랜 시간 동안의 노력하신 결과물이라고 멋대로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나서는 제멋대로 실망감을 느낀 것 같다. 항상 그랬듯이 마음을 비운다고 하면서도 노력한 댓가를 바라고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결과를 보고 싶은 욕망이 내 마음의 평화를 깨고 있었다. 그래서 PNG 참여 목적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됐다. "무엇을 위해?"라는 질문의 답은 가까이 있었다. 'Walk in LOVE' PNG 2014 주제를 다시 생각해 보니 '하느님과 함께 사랑 안에서 걷는 것'이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루 만져 주셨듯이, 서투르고 부족하지만, 하느님 안에서 사람들에게 사랑, 관심, 배려를 표현하고 싶었던 마음이 이번 여정의 목적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치

료'에만 국한된 만남이 아니라 여태까지 제가 받아온 사랑을 조금이나마 치료를 통해 나눌 수 있기를, 그리고 하느님께서 봉사단과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하루 이틀이 지나며 수녀님들은 우리에게 쉬는 시간의 중요함을 강조하셨다. 처음에는 열정과 책임감으로 짧은 시간 안에 환자를 더 많이 봐야한다는 생각에 쉬는 시간은 중요치 않다고 생각했다. 셋째 날의 말씀 묵상 중 "네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마태 22:40)"라는 말씀이 있었다. 이 말씀을 생각해 보니 제 자신을 돌보고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도 자신처럼 사랑해 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날 사랑과 관심을 표현하고자 했던 나의 몸과 마음은 이틀동안 지쳐있었다. 내 자신을 신경쓰지 않고 의욕에 앞서 치료를 하다 보니 내 안에있는 마음을 나누기보다 치료에만 급급하고 다음 환자 볼 생각에 가득 차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았다. 잠깐이라도 수녀님들의 말씀처럼 쉬을 갖고 재충전 후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들에게 온전한 마음을 쏟고 정성을 전달할 수 있다는 것을, 그 쉽기 나만의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도 쉬는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섯번째 날에 있었던 복음 말씀 중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 (요한 13:2)"란 구절이 마음에 남는다. 'PNG 2014 Walk in Love'가 10월 12일로 끝난 것이 아닌 일상생활에서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PNG에서 각자 마음에 담아 온 열매를 나누고 사랑하며 하느님 안에서 끝까지 'Walk in Love'를 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안세영 요세피나, 치과의사, 뉴질랜드 가톨릭 한인청년 해외봉사단 베리타스 단장)

가톨릭 교우는 미사 참례, 성사생활과 기도생활에 충실하여야 하며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선포 하셨듯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합니다.

**시드니 한인 천주교회 미사 안내**

- 특전미사 : 토요일 오후 4시(초등부), 5시30분(중등부), 7시30분(청년부)
- 주일미사 : 오전 7시, 오전 9시, 오전 10시30분, 오후 5시30분(영어), 오후 7시30분
- 시티미사 : 오후 5시 (St. Peter Julian's Catholic Church, 641 George St Haymarket NSW 2000)
- 평일미사 : 월 7:30pm / 화 7:00am / 수.목.금 9:30am, 7:30pm / 토 9:30am
- 차량운행 : 매주일: 리드컴(8:30am, 9:40am, 10:15am) 이스트우드(9:30am) 캄시(9:30am)  
평 일: 리드컴(수, 목, 금 7:10pm)
- 문 의 : (02) 8756 3333 / email : info@sydneykcc.org

가톨릭신문은 교우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신앙 체험, 레지오 및 소공동체 활동, 함께 나눌 만한 이야기, 신앙생활 후기 및 수필 등에 대해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무실 / TEL. 02 8756 3333  
E-Mail. info@sydneykcc.org

**HB Music College**  
스트라스필드 13 Abbotsford Rd, Hombush  
Website [www.hbmusic.com.au](http://www.hbmusic.com.au)  
E-mail [info@hbmusic.com.au](mailto:info@hbmusic.com.au)  
대학입시, HSC, 음악영재, 각종 콩쿨지도  
AMEB GRADE 시험 본원에서 직접 실시  
**0433 534 881** 원장 허마리아  
**9745 5353** 부원장 허난

**이사/물류 전문업체** 주식회사 협회등록 1호  
**한진운송**  
이사는 역시 한진이 최고! 이사에 관한 모든 문의 환영  
**최다차량 보유 8대**  
최대형 10톤, 9톤, 6톤, 5톤, 4톤 트럭 2대, 밴 2대 보유  
**7개 라인** **0431 24 24 24**  
대표 **허요셉** **9648 2424**

실용성이 있는곳에 세계가 몰려있다!  
**한진IT**  
\* 서버, 네트워크, 컴퓨터  
\* 키온, IP-PABX, 070전화  
\* 웹 서비스, Google 상위등록  
\* TPG 인터넷  
**www.hanjin.com.au**  
**허 안토니오** **02 8064 7466**  
Manager **070 7899 4400**

**TRUE ROSES**  
각종 화환 / 웨딩전문  
Shop 19/222-230 Church St. Paramatta  
**9633 1616**  
**0423 832 854**